

검찰청 소속 공무원, 중수청 특례 임용을 위한 희망신청 결과 총 2,375명 접수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단장 김민재, 이하 준비단)은 지난 8월 7일부터 20일 18시까지 검찰청 소속 검사 및 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특례 임용 희망 신청 접수를 받았다.

동 기간동안 특례 임용 희망 신청서를 접수한 인원은 총 2,375명이며, 이는 중수청 직제상 정원(2,874명)의 82.6%에 해당하는 인원이다.

공소청 직제와 정원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검찰청 정원 감축 규모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중대범죄 수사를 통해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검사 또는 수사관들이 자발적으로 중수청행을 선택한 것임을 고려할 때 의미 있는 수치로 평가된다.

참고로, 준비단은 총 접수 인원을 밝히면서 향후 인사관리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접수 인원에 대한 세부내역(검사, 수사관, 일반직, 계급별 인원, 명단 등)은 구체적으로 안내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준비단은 제출된 신청 서류 등을 바탕으로 9월 중에 근무희망지, 경력,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중수청 특례 임용 대상자를 선정하고, 중수청 출범일(10.2.)에 맞춰 임용할 예정이다.

금번 특례 임용에서 미충원되는 인력은 향후 공소청 직제에 따라 정해질 검찰청 정원 감축 규모 등을 고려하여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 제2항에 따라 공소청 소속 검사 및 직원을 대상으로 추가 특례 임용을 추진하고, 아울러 경찰, 변호사, 회계사, 사이버기술 및 금융분석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경력경쟁채용 절차를 통해 충원할

예정이다.

김민재 준비단 단장은 “중수청은 시대적 요구인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 개혁을 선도할 핵심 기관으로서 중수청에 자발적으로 지원해 주신 검찰청 소속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정적인 조직 출범을 위해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준비단 총무과	책임자	과 장	위현수 (02-3778-4601)
		담당자	서기관	안정희 (02-3778-4610)

